

# 남/북한의 민족, 민족주의, 민족문학론 연구\*

남 원 진\*\*

- |                             |                           |
|-----------------------------|---------------------------|
| I. 서론                       | IV. '민족의 힘'을 상상하는 민족 문학론  |
| II. 남/북한의 근대 기획             | V. 결론 - '배신과 복수'의 폭력의 변증법 |
| III. 민족의 '신화'와 '위대한 과거'의 탄생 |                           |

---

## Abstract

---

### The South and North Korean Nation, Nationalism and Korean Literature

The choice and exclus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conceive and the logic of civilization and savagery are anti-Communism of South Korea and anti-Imperialism of the North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discourse on the north and south literature is process of a thesis and is specialized by difference of liberalism and socialism ideology (anti-Communism, anti-Imperialism). The discours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nation is logic that can confirm the justice by excluding other nations. Other nations that warrant the future of the great race or the thing that require current sacrifice is

violence. The restoration of race or the period of Subject that the great leader accomplishes is respited constantly. The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 prove it. Therefore, he discours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ace theory of literature is the logic that can confirm the justice by excluding other nations. Finally, substantial contents in the discourse of South and North Korea nation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it is imperial gaze that targets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odern discourse that ranks nations.

**Key Words:** Modern Project, Nation, Nationalism, Korean Literature, the Force of Nation, Mythology of the nation, Great Past.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43-A00060).

\*\*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I. 서 론

9·11 테러 이후 미국식 민족주의(WASP 민족주의)의 부활이나 고구려의 역사,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 독도 문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sup>1</sup> 등과 관련된 감정적 민족주의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남한 사회의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북 문학예술 연구나 통일문학론에 대한 주장은 일반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강하다. 특히 요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을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민족주의라는 당위성의 강조로 흐를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이는 자칫 분단 체제라는 현실 논리의 한 산물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경직된 민족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감정적 민족주의는 타자 상상하기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특히 대중 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남한의 이북에 대한 인식은 이북 사람들이 ‘불쌍하다’거나 ‘촌스럽다’라는 표현이다. 이런 인식은 역사가 단선적으로 진보한다고 보는 단선 진화론과 자본주의적 발전을 본보기로 그 모형에 가까이 갈수록 세련되고 향상된 사회가 된다는 추상적 근대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태도이자 정서이다. 이 정서의 원형은 서구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정서를 이루는 틀의 핵심은 ‘주도권’ 쟁탈전이다. 이 틀에서 모든 문화적 차이는 열등한 것으로 서열화된다. 힘과 재력을 가진 강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성이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우월했던 이북이 남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지금은 남한 경제가 향상된 상태에서 남한이 이북을 바라보는 시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북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면에서 직접적인 제국주의적 시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위계 서열적으로 배열하는 추상적 근대주의나 경직된 민족주의는 둘 다 하루라도 빨리 극복되어야 할 시각이다.<sup>2</sup>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우리’들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민족 담론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갖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스스로 남/북한의 평화 공존이나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sup>1</sup> 권재현, “명성황후 시해, 日내각 개입 문건 찾아,” 『동아일보』, 2006년 6월 5일.

<sup>2</sup> 조한혜정, “통일 공간과 문화-비판적 재해석,” 조한혜정·이우영(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pp. 327~328.

을 전환하는 데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남/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남/북한 사회의 민족, 민족주의, 민족문화론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조명하고 성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남/북한 문화 교류 및 문화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의 근대 민족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근대 기획을 통해 뿌리내린 민족주의적 단일 주체 모형을 해체하고 다중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가는 역사적 모형을 탐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남/북한의 근대 기획

왜 근대 기획인가? 근대(the Modern Age)란 근본적으로 이성의 기획을 바탕으로 한 진보의 신화로 말해질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성적 주체를 중심에 둔 진보의 신화는 ‘과거보다는 어쨌든 현재가 낫다’는 태도를 일반화시킨다. 이와 같은 태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바로 ‘근대의 신화화’이다. 이 기획된 ‘신화 만들기’는 근대라는 개념에 ‘물질적 발전인 산업화’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발전’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발전 과정을 하나로 섞어 넣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혼합은 근대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고, 근대 이후, 즉 ‘우리’ 시대의 모순을 은폐하고 현재의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신화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이 신화는 암흑의 시대로 중세를 억압하고, 자기 시대를 이성과 진보의 관념으로 이상화하며, 우리 시대의 모순을 은폐하는 환상<sup>3</sup>이다. 이런 의미의 연장에서 볼 때, 근대 기획은 선택과 배제의 어두운 그림자인 억압 체계이며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체계인 제국의 논리이다. 또한 이 기획은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 타자를 희생시키는 일종의 책략이다. 결국 근대에 의해 상상된 역사란 희생을 내면화하는 역사이며 체념의 역사<sup>4</sup>이다. 이런 근대 기획이 배태한 ‘선택과 배제’, ‘문명과 야만’의 논리가 바로 남한의 반공주의 기획과 이북의 반제국주의 기획이다. 이런 기획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사회는 서로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

<sup>3</sup> 김창현, 『한일 소설 형성사』 (서울: 책세상, 2002), pp. 12~13.

<sup>4</sup> M. Horkheimer & Th. W. Adorno, 김유동·주경식·이경훈(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p. 84~91.

은 존재인 이형동질성(異形同質性)의 사회이다.

남한의 반공주의 기획은 지배 체제의 전유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공산당은 “잔인한 동물의 집단”<sup>5</sup>이며, “빨갱이는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sup>6</sup>야 된다는 국민(민족)의 생활 논리로 흡수된다. 이 기제는 우리의 몸 안에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유발하는 일종의 자동적 조건 반사의 회로판을 만들어 놓았다. 반공주의는 반동적 사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통해 ‘민족’을 반공주의 기획에 동원하는 방식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제의 식민 정책에서 유래<sup>7</sup>한 남한 정권이 창출한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활용하여 이를 강화하려는 세련된 시도이며 변혁에 대한 일정한 경계를 통하여 변혁 운동과 방향에서 진보성을 제거하는 매우 교묘히 위장된 논리이다.<sup>8</sup> ‘해방’ 이후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는 현상적 내용이 ‘일민주의(민족은 하나다)’나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적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되지만, 특정 지배자의 실제 이익에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반공주의로 포장된 국가주의이다. ‘반공’의 내용이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다. 그 내용은 더 나은 무엇에 대한 대체물로서 오직 기만당한 개인들의 절망에 의해 근근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sup>5</sup> 김기진, “우리가 걸어온 길-문인이 겪은 해방·건국·동란,” 『동아일보』, 1958년 8월 17일.

<sup>6</sup> 김동리, “형제,” 『백민』 (1949. 3), p. 79.

<sup>7</sup>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992. 봄), pp. 127~130.

<sup>8</sup> 권혁범, “반공주의 회포판 읽기-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조한혜정·이우영(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pp. 44~50.

<sup>9</sup> 그로테스크한 반공주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공’의 내용이란 ‘무엇’에 대해 반대하는 대체물로서 오직 기만당한 개인들의 절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다. “鮮은 이런 때 팽창(膨脹)하는 메시꺼움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불쑥 나오는 말이, / ‘이놈의 새끼 공산당아!’ / 터무니 없이 植을 가리키어 공산당이라고 몰아 세우며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植은 꼭 불침을 맞은 사람같이 필쩍 뛰며 / ‘뭐 내가 공산당이라구?’ / ‘그렇다 이 새끼야.’ / ‘똥이! 아 이북에서 빨갱이한테 쫓겨온 내가 공산당이라구? 짜식 그냥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니!’ / ‘쫓겨 나왔는지 어찌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간첩(間諜)은 다 이북에서 넘어 오더라. 아 그래 간첩이 넌 공산당이 아니란 말이나!’ / ‘아 저 자식 좀 봐. 이제 못할 말이 없군. 아 그럼 내가 간첩이란 말이나 저 죽일 놈이! 증거를 대봐 증거를 이 자식아!’ / ‘이 새끼야 세상에 증거가 따로 있나 정부에 반대하면 그게 다 증거지.’ / ‘이 자식이 뭐라구! 내가 언제 그럼 정부에 반대했던 말이나 응! 말해 봐 어서 말해!’ / ‘그럼 너 그제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난 말이나 이 새끼야. 내 말은 말이지 정부에선 먼저 건설(建設)을 하구 나중에 통일을 하겠다는데 넌 이 새끼야 왜 건설 소린 안하구 밤낮 통일이란 말이나 이 새끼야.’ / ‘그건 내 사정하구 정부사정 하군 약간 다르니까 그렇지 뭐냐 이 자식아! 그래 두 통일을 해야겠다는 사상만은 나하구 같지 뭐니 이 자식아.’ / ‘뭐 너하구 같다구! 아 엄연히 생각하는 선후(先後)가 틀려도 너하구 같아 이 새끼야 뭘 세상에 저런 썩맥이 다 어디있

이에 반해 이북의 반제국주의 기획은 인민민주주의<sup>10</sup>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활용하여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며, 변혁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고, 인민을 교양하고 동원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북은 이 기획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sup>11</sup>인 일본이나 미국 제국주의와 관련된 모든 이데올로기를 반동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비판한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북은 반동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반동문학”<sup>12</sup>을 “씩어 빠진 각종 부르주아 반동미학”<sup>13</sup>으로 규정하여 제국주의에 부응하는 모든 문학예술을 비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북에서 부르주아 반동 문학예술이란 제국주의 문학예술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북의 사회주의 미학의 기본 구도는 반동 문학예술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 문학예술에 대한 긍정이다. 사회주의 문학에서는 계급을 중심축으로 놓고 문화를 분석한 레닌의 두 개의 민족문화론<sup>14</sup>에 따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냐?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냐?’에 대한 문제에 오직 설 뿐 중간 노선은 없음

어 응!’ / 鮮이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발을 탕탕 구르며 닢(植) 뭐라고 변명을 해도 간첩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정 ‘통일’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길 만이 ‘여권’을 얻을 자본을 장만하기 위한 지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鮮이는 주먹을 쥐고 흥분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웬일인지 植은 한 마디 대꾸가 없이 얼굴이 창백해 지면서 졸도하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다. 공산당이 아닌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植은 지금 우선 배가 곱아서 헛기증이 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鮮이도 금방 고발을 하러 나갈 것 같이 혼자서 서둘다가는 제물에 지쳐서 의자에 비실비실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남정현, “기상도,” 『사상계』 (1961. 8), pp. 325~326.

<sup>10</sup>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초기의 이론은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소비에트 제도와 상이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부르주아 독재도 아닌 제3의 형 내지는 새로운 형의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48년 6월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몰려 코민포름에서 추방된 뒤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재해석된다. 1948년 12월 디미트로프가 불가리아 노동자당 제5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조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한 이후 이것이 사회주의권의 공식 이론이 된다. 서재진,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57.

<sup>11</sup>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84.

<sup>12</sup> 김하명, “미제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문학,” 『로동신문』, 1956년 3월; 『새문학건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 373.

<sup>13</sup> 박종식, “남조선에서 미제가 류포하는 부르주아 반동 미학의 본질(1957),” 『새 시대의 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p. 267.

<sup>14</sup> “모든 근대 민족에는 두 민족이 존재한다. 모든 민족문화에는 두 가지 민족문화가 존재한다.” V. I. Lenin, “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서,” 이길주(역), 『레닌의 문학예술론』 (서울: 논장, 1988), p. 138.

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모든 과소 평가나 부정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문학과 이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으로 양분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문학이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문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르주아 문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잠입한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 수정주의자, 절충주의자, 기회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의 문학과 투쟁하는 문학이다.

근대 기획은 국가주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 동의, 즉 복종의 원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해방기에서 시작해서 6·25 전쟁 이후 완성된 남/북한의 근대 기획(반공/반제국주의 기획)은 ‘민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훈육적 권력(disciplinary power)에 의해 복종되고 훈련된 육체, 복종하고 욕망하는 육체를 탄생시키고 이를 내면화하게 만든다.<sup>15</sup> 이 기제 속에서는 육체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더욱 육체를 복종적으로 만들고, 그 반대로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더욱 유용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생성시킨다.<sup>16</sup> 육체 훈육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험, 교육, 처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기획은 육체의 훈육 과정을 통해 민족의 육체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면서 민족의 각 개인들이 반공주의, 반제국주의를 말하고 욕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기능으로 전환된다. 민족 스스로가 개인의 육체와 언어를 억압하고,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래서 반공/반제국주의는 민족 스스로가 생산하게 된다. 민족이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반공/반제국주의 자체와 그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지배 체제의 재생산이 가능해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민족’은 스스로 이를 생산하고, 스스로를 ‘반제국/반공하는 삶-주체’로 탄생<sup>17</sup>된다.

‘애국주의’라는 가면을 쓴 이러한 기제는 특정한 대상이나 기호(축구, 태권도나 단군, 이순신, 세종대왕 등)에 고착시켜 놓고 그것을 열렬히 욕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체를 장악하는 식으로 ‘욕망의 기계적 배치’<sup>18</sup>를 행한다. 특히 권력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로테스크하고 공허하다. 그 단적인 예가 ‘가서 학살하라! 그러면 생존을 보장하리라’는 민족국가의 기본적 명제이다. ‘민족’의 생

<sup>15</sup> M. Foucault, 홍성민(역),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1991), p. 136.

<sup>16</sup> M. Foucault, 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1994), p. 207.

<sup>17</sup> 고길섭,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서울: 토담, 1995), p. 232.

<sup>18</sup> G. Deleuse & F. Guattari, 조한경(역),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p. 148.

존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이 행해지고, ‘민족’ 전체가 생존의 필요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죽이도록 훈련받는다.<sup>19</sup> 이런 근대 기획(반공주의/반제국주의)이 반동적 힘으로만 작용할 때, 모든 주체는 이미 견고하게 짜인 틀 위에서 사유하고 기억하도록 ‘코드화’된다. 한 시대가 요구했던 이 사유와 행동의 기제들이 능동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직 중력의 장치로만 기능할 때, 이 기획은 다만 억압 기제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이 기제는 질곡을 질곡으로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반동적 힘으로 작용하며 이 기획이 강력한 만큼 공허하고, 공허할수록 더 강한 에너지를 투사해야 하는 비극적인 순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발견되는 순간 부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야 할 역설의 연속체인 것이다. 이는 오직 낱말의 의미를 우선 규정해놓고 임의적 해석을 가하는 일종의 ‘동일성의 폭력’이다.<sup>20</sup> 이런 측면에서 이 기획은 문제성을 갖는다.

### III. 민족의 ‘신화’와 ‘위대한 과거’의 탄생

‘근대’적인 민족<sup>21</sup>은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로, 특히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봉건제의 폐지와 자본주의의 성장과정”과 함께 성립된 민족은 “자본주의의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적 범주”<sup>22</sup>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sup>19</sup> M. Foucault, 이규현(역), 『성의 역사 1』 (서울: 나남, 1990), p. 147.

<sup>20</sup>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서울: 책세상, 2001), pp. 19~78.

<sup>21</sup>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인종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주의가 종족, 조상, 종교, 언어, 영토라는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는 ‘원초론(Primordialism)’과 민족주의란 결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며 그 역사성을 강조하는 ‘도구론(Instrumentalism)’으로 나눌 수 있다.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과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결국 민족주의는 민족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족 개념은 민족주의 연구의 시작이며 끝이다 (임지현, “민족주의,” 김영한·임지현(편), 『서양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 538).

<sup>22</sup> J. V. Stalin, “맑스주의와 민족 문제,” 서중건(역), 『스탈린 선집 1』 (서울: 전진, 1990), pp. 45~50. 스탈린은 민족의 가장 결정적인 형성 요소를 경제적 요인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스탈린식 민족론은 구 소련의 공식적 민족론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의 민족론은 “민족 개념의 본질적 이중구조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소와 언어·문화적 요소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결여되어 있다.” 박호성, 『남

진 문화적 산물이며, 역사적으로 기획된 ‘상상된 공동체’이다. 이런 민족에 대한 규정은 민족이 규정된 후 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구축된 후 이 이론에 의해 소급적으로 민족을 정의하게 된다.<sup>23</sup> 민족이 구축되는 과정은 개인이 ‘민족주의’라는 주인-기표(master-signifier)의 호출과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지점인 누빔점(point de capiton)에 의해서 꺾매어지는 점<sup>24</sup>이다. 이 지점에서 부유하는 다양한 기표들은 ‘민족주의’라는 누빔점에 의해 민족주의적 의미로 새롭게 소급되어 창출되며 의미가 고정된다.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의 교통(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 민족은 제한된 것으로 상상된다. (……) 어떤 민족도 그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민족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신이 정한 계층적 왕국의 합법성을 계몽사상과 혁명이 무너뜨리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sup>25</sup>

민족이란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 근대적인 민족이란 상상된 공동체이며, 아무런 중심이 없는 텅빈 동질성을 형성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균질적인 공허한 시간을 가진 것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것이다. “인간언어의 숙명적 다양성 위에 자본주의와 인쇄기술의 수렵이 그 기본 형태에 있어” 근대 “민족(nation)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형태의 상상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창조”<sup>26</sup>한다. ‘순수한’ 민족이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출현하여 일반화된 민족주의의 역사적 과정에서 탄생된 개념이다. 민족주의에서 도덕(정상)과 비도덕(비정상)이나 민족(정상)과

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울: 당대, 1997), pp. 105~106.

<sup>23</sup> E. J. Hobsbawm, 강명세(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p. 25~26.

<sup>24</sup> “누빔점은 주체가 기표에 ‘꺾매어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주인기표(‘공산주의’·‘신’·‘자유’·‘미국’)의 호출과 함께 개인에게 말을 걸면서 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하는 지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기표 연쇄를 주체화하는 지점이다.” S. Žižek, 이수련(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서울: 인간사랑, 2002), p. 179.

<sup>25</sup> B. Anderson, 윤형숙(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pp. 21~22.

<sup>26</sup> 위의 책, p. 69.



비민족(비정상)에 대한 경계는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산물<sup>27</sup>이다. 타자를 배제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경계짓기의 개념인 민족 담론은 시대의 야만을 은폐하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민족이란 기호는 절대적 선을 상징하는 ‘신성한’ 초월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야만의 얼굴을 한 ‘폭력’이다. 민족의 순수한 자기 동일성은 헛된 기만이며 모든 문화는 ‘혼종성(잡종)’일 뿐이다.

이런 ‘민족’ 담론은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계몽기에 탄생한 민족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 사회의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념적 지표가 된다. 개인이 역사적 정통성(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지배 체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국민’ 만들기의 전략을 통해 체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려는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가주의가 유포한 국민 만들기의 중요한 전략이 ‘민족사 다시 쓰기’ 작업이다. 민족이 하나의 실체적 단위로 설정되는 순간, 민족의 내부와 외부가 명확히 규정되고, 이 사이의 대결 투쟁은 역사의 중심이 된다. 체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나 이에 대한 저항 담론은 민족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재구성해낸다. 이 과정에서 단군 신화, 고구려의 역사나 민중운동, 동학농민운동, 항일혁명 투쟁의 역사가 ‘위대한 과거’로 되살려진다. 그러나 흔히 민족사 다시 쓰기 작업에서 나타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 항상 적의 침입에 맞서 대동단결해서 투쟁했다’<sup>28</sup>는 일반적 통념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관념적 해석에 불과하다.<sup>29</sup>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 통념들은 대부분 근대와 함께 우리 신체에 각인된 것들이다.

<sup>27</sup> G. L. Mosse, 서강여성문학연구회(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울: 소명, 2004), p. 12.

<sup>28</sup> “단군성조(檀君聖祖)가 천혜의 이 강토에 국기(國基)를 닦으신 지 반만년, 엄연히 이어온 역사와 전통위에서”, “우리의 역사는 수없이 많았던 외세의 침략을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격퇴한 억센 민족이며, 인내와 끈기로 고난을 이겨낸 생명력과 창조력을 지닌 민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대한 실증’에의 전진-제6대 대통령취임사,” 『자유공론』 (1967. 8), pp. 24~25.

<sup>29</sup> 특히 한일 관계사는 현재주의에 의해 투영된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쟁점들을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외세에 대한 민족항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의 전제인 민족은 차치한다고 해도 피차간에 아직 민족체의 형성조차 유동적인 상황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역사적 실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역사상황에서는 ‘한일관계사’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연구의 방향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임지현,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1994, 가을), p. 120.

특히 남/북한 사회에서 해방 이후 ‘광개토왕비문’을 둘러싼 논쟁이나 발해사 연구는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에 걸맞는 담론의 저장고 역할을 했던 것이다. 남/북한 모두 발해를 한민족의 국가로 간주함으로써 발해사 연구는 현재의 분단 상황 극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신라·발해 병립시대에 투영한 다음, 단일 민족이 남북으로 병립해 있는 부자연스러움과 불완전함을 환기시키며 통합에의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한 통일은 현재의 시대적 요청이지 당시의 역사적 요청은 아니다. 여기서도 현재를 과거에 투영한 행위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다.<sup>30</sup> 다양한 전통이나 과거 가운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체의 권력화와 타자를 배제하는 정치적 이기주의가 ‘위대한 과거’와 ‘빛나는 애국적 전통’<sup>31</sup>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기적 과거나 전통에의 상상과 기억은 오늘날 까지도 민족 담론과 역사 서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결국 민족사 다시 쓰기 작업이란 현재의 문맥(현재주의)에 따라 과거를 재발견하여 역사적으로 구성하기이며,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신화 만들기이다. 이런 위대한 민족 역사의 발견과 민족사 다시 쓰기 작업이란 국가주의를 담보한 근대 기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에서 민족이 국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민족을 선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을 상상하는 민족주의는 전통을 발명하고 민족에 대한 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이런 국가에 의해 선도된 신화 만들기는 민족적 정체성 확보와 국가주의 강화를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볼 때, ‘텅빈 기호’인 민족을 상상하는 민족문화론은 근대 기획이 낳은 대표적인 담론이다. 결국 근대 민족 담론은 텅빈 동질성 형성과 함께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유일한 최고의 범주로 설정된 민족 담론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up>30</sup> 李成市, “고대사에 나타난 국민 국가 이야기 - 일본과 아시아를 가로막는 것,” 박경희(역), 『만들어진 고대』 (서울: 삼인, 2001), p. 26; 임지현,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123.

<sup>31</sup> “우리 력사 작품의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빛나는 애국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국 남반부를 미제 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우리 선조들의 영웅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불타는 혁명 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려는 작가적 지향과 열정에 의하여 설명된다.”(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문학 연구실, 『조선 로동당의 문예정책과 해방 후 문학』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p. 148) 이북의 이러한 ‘빛나는 애국적 전통’의 복원 의지는 개인을 교양하고 동원하고자 하는 국가주의 기획의 일환이며, 남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북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 IV. ‘민족의 힘’을 상상하는 민족 문학론

근대 기획의 국가주의에 의해 창출된 단일 민족의 신화와 민족을 상상함으로써 만들어진 민족문학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대에 기획된 남/북한의 민족문학론은 대부분 ‘민족의식’이라는 집단적 열망을 기반으로 한 저항 민족주의 차원의 담론적 성격이 강하다. 식민지와 분단으로 왜곡된 근대의 민족 문학 담론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담론이며, 민족주의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 임무를 삼는 형태의 것이다.

민족 문학 담론의 정서적 공감대의 기반인 저항 민족주의의 성격은 어떠한가? 저항 민족주의에서 적의 침입에 맞서 민족의 단합을 외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지만, 절대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며, 이런 담론은 힘의 논리인 제국의 논리를 담고 있다. 이 담론이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를 정서적 공감대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족적 적을 설정하여 민족적 일체감에 대한 호소를 손쉽게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국민통합이라는 지배세력의 정책적 고려에 부응하여,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추구되는 ‘민족단합’의 지극히 효율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가상적인’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설정하는 위기 논리인 동시에 ‘실질적인’ 민족 내부의 적을 은폐하는 논리이기도 하다.<sup>32</sup> 이런 민족 담론의 한계는 1930년대 중·후반 ‘근대의 초극’을 주장한 일본 제국의 동양주의의 맥락과 겹친다. 다시 말해서 서구를 타자화하고, 동양을 동일화함으로써 동양 내부의 폭력과 지배가 문제되지 않듯이, 민족의 안의 모순과 폭력은 무화된다.

민족문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신채호의 역사 담론은 어떠한가?

그런 까닭에 을지문덕주의는 적이 커도 나는 반드시 나아가고 적이 강하여도 나는 반드시 나아가며 적이 정예하든지 용감하든지 나는 반드시 나아가는 것이니, 한 발짝을 물러나면 땀이 등을 적시고 한 오라기를 양보하면 피가 가슴속에 들끓는다. 이것으로 자신을 다그치고 이것으로 동료들 북돋우며 이것으로 온 국민을 일떠세워, 사는 것도 조선 때문이요, 죽는 것도 조선 때문이며 한 번 숨을 쉬고 한끼 밥을 먹는 것도 조선 때문에 한 결과 여진(女眞) 부락이 모두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의 천자를 거의 우리 손으로 사로잡을 뻔했던 것이었으니, 아아! 땅덩이가 넓다 해도 그 나라가 큰 것이 아니다. 군사와 백성이 많다 해도 그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강 자대(自強自大)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강대해지기 마련이니, 현명하다. 을지문덕주의여.

<sup>32</sup>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p. 47.

을지문덕주의는 무슨 주의인가? “이는 제국주의이다.”<sup>33</sup>

신채호 역사 담론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민족주의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긍정적으로 이상화하고 타자의 본질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담론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군이나 고구려, 신라 등의 고대 역사를 이상화하는 신화 만들기이며, 야만의 표상인 “독살스런 눈초리”의 “섬나라의 별다른 종자들”<sup>34</sup>로 일본(타자)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이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민족’이라는 ‘신성한’ 기호를 실현할 수 있는 인격적 화신이며,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면서 ‘민족’의 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명기계’<sup>35</sup>이다. 이런 그의 역사 담론은 “나라를 위해 죽어보세”<sup>36</sup>와 같은 휘황한 ‘죽음’의 수사학을 동반하는 남성적 영웅 만들기과 전투적 애국 정신의 집결지이며 영웅의 땅으로 고구려를 이상화시킨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으로 국가 상실의 위기나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부재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 저항 담론의 역할을 한다. 그는 “제국주의로 저항하는 방법”이 “민족주의(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주의)를 분투(奮鬪)함”<sup>37</sup>이라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런 저항 담론으로서 민족의 역사로 이상화된 고구려의 역사 또한 ‘을지문덕주의(제국주의)’로 표상되는 제국의 역사라는 사실이 더욱 더 문제이다. 이런 것은 제국에 대한 저항 담론이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국의 논리로 뒤엎히는 ‘부적절한 모방’<sup>38</sup>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고대의 역사를 전유함으로써 근대 국가를 기획했던 계몽주의자의 역설<sup>39</sup>이다. 이로 볼 때,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sup>40</sup>에 갇힌 이분법적 역사(민족의 역사)에서는 출구가 없다.

이런 역설적 담론인 민족주의는 대부분 국가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전체주의가 관철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sup>41</sup>한다. 또한 ‘야만과 문명’의 사회 진화론을

<sup>33</sup> 신채호, “을지문덕,” 『꿈하늘(신채호 소설선)』 (서울: 동광출판사, 1990), p. 187.

<sup>34</sup> 신채호, “이순신전,” 위의 책, p. 254.

<sup>35</sup>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p. 67.

<sup>36</sup> 리필균, “대조선 자주독립 애국가,” 김학길(편), 『계몽기사가집』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245.

<sup>37</sup> 신채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단재신채호전집간행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하)』 (서울: 형성출판사, 1982), p. 108.

<sup>38</sup> 小森陽一, 송태욱(역), 『포스트콜로니얼』 (서울: 삼인, 2002), p. 48.

<sup>39</sup>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서울: 책세상, 2000), pp. 40~41.

<sup>40</sup>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전집간행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상)』 (서울: 형성출판사, 1982), p. 31.

바탕으로 한 제국의 논리가 기반된 한 폭력의 담론이기도 하다. 흔히 계몽기 담론에서 보이는 “제국주의를 향한 강렬한 욕망과 이에 대한 거부라는 복합적이고 분열적인 욕망의 뒤얽힘”<sup>42</sup>의 모습은 이런 측면을 여실히 반영해 준다. 특히 계몽기의 담론은 서구 제국의 논리에 입각해 자기를 철저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하는 자기 식민화한 것이며, 제국의 폭력에 맞선 제국의 논리라는 역설을 갖고 있다. 이런 역설은 태생적으로 한국 문학이 포스트콜로니얼한 동화와 뒤얽힘 속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모방, 혼종성(잡종)의 산물이라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과연 이런 민족과 민족주의를 중요한 논리적 거점으로 하고 있는 민족 문학론은 어떤 모습일까? 왜 민족문학이어야 하는가? 세계문학의 보편성 속에서 바라볼 때, 민족문학은 ‘아마도’ 각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토착성에 기반을 둔 문학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족문학이란 용어는 독특하게 구별되는 의미 체계를 형성하고 그 의미가 변화되는 개념이다. 한국문학에서 민족문학이란 프로문학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새로운 민족문학의 수립”(『문예운동』 2, 1926. 5)이란 평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김동인의 “민족문학과 무산문학의 박약한 차이점과 양 합치성”(『삼천리』 1, 1929. 6), 김영팔의 “본질적으로 양문학은 빙탄의 관계”(『삼천리』 1, 1929. 6), 문일평의 “민족문학의 수립”(『문예공론』 2, 1929. 6)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민족문학이란 용어는 민족주의 문학이나 국민문학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1920년대 사용된 “조선으로 돌아가자!” “진정한 국민문학을 건설하자!”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민족문학이란 실상 ‘문단상의 조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조선주의”는 다시 말하면 조선 민족 정신의 발현, 문학 고전의 부활, 민족적 예술 형식의 창조, 외래 사조 추종의 배척 등이 그 중심 골자인 듯하다.”<sup>43</sup> 이런 성격의 국민(민족) 문학 담론은 우파적 보수주의, 복고주의, 계몽주의 등의 정신에 기반한 권력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sup>44</sup> ‘탁월한’ 전략가 김현은 이 담론에 대

<sup>41</sup> 민족국가는 국내 평화, 한정된 영토에서의 행정의 통일, 감시 활동의 극대화 등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지배로 떨어질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A. Giddens, 진덕규(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1), pp. 346~347.

<sup>42</sup>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p. 41.

<sup>43</sup> 김기진, “문예 시평-문단상 조선주의,” 『조선지광』 (1927. 2); 홍정선(편), 『김팔봉문학전집 1』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p. 277~278.

<sup>44</sup> “민족문학은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우파적 성격을 띠며, 문학적으로는 복고조를 내용으

한 ‘역겨움’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그것은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며, 지나치게 복고적이며, 지나치게 교조적이다. 그것이 포함하는 권력 지향적 특성이 또한 나에게서는 싫다. 민족문학은 다시 한마디로 자르자면 한국 우위주의라는 가면을 쓴 패배주의자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관이 결여되어 있는 문학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 나치즘화에 쉽게 가담한다.”<sup>45</sup> 따라서 이런 보수적 민족 담론은 당대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학’의 절대적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민족문학의 정신적 기반은 해방기를 거쳐 6·25 전쟁 이후까지 확대 재생산된다.

1920년대 민족문학이 계급을 대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보수적 개념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프로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계급 관계에서 민족을 파악한다. 이 프로문학과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해방기의 좌익의 문학 담론은 진보적 민족 담론과 관련성을 갖는다. 좌익의 ‘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이란 “어느 일부 소수인이나 특권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감정을 표현하고(표현한-인용자) 문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절대다수인 노동인민이 민주주의적인, 민족성원으로 다 같이 행복된 생활에서 다 같이 향락할 수 있는 민족전체의 문학”<sup>46</sup>이다. 이 담론은 개인의 의지에 기초한 자율성을 가진 개별 주체가 ‘민족적 주체’라는 ‘전체’에 수렴되는 전체주의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다. 이 논리의 상투적인 수사인 ‘분열에서 통합’(‘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와 같은 지배 담론과 마찬가지로)이라는 명제는 남/북한 ‘민족’의 생존 욕망을 자극하고 동원하며 통합하려는 권력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런 인민적 민족 담론은 ‘개인=민족=전체’의 등가성의 원리를 통해서 인민을 동원하고 통합하려는 전체주의의 논리이다.

로 한다. 그것은 국민문학(민족문학)이 계몽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계몽주의가 한국 현실의 모순을 파헤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대신 당위성을 항상 그 일관된 주장으로 밀고 와, 계몽주의자들의 시혜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것은 한국 계몽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다. 물론 한국의 계몽주의가 식민지화에 대한 반발로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반식민지화에 너무 집착하여 한국 재래 사회구조의 모순을 눈감아버린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정신의 한 성향을 잘 보여준다. 여하튼 우파적 보수주의, 복고조, 계몽주의라는 세 지주는 민족주의 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해방 후의 순수문학자들,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등의 문학이 쉽게 민족문학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민족문학의 세 지주가 그들의 행동반경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지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 지향적 측면도 그러한 민족문학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김현, “민족문학·그 문자와 언어,” 『월간문학』 (1970. 10), p. 119.

<sup>45</sup> 위의 글, p. 119.

<sup>46</sup> 이원조, “민족문학확립에,” 『조광』 (1946. 3), p. 22.

이런 등가성의 원리를 가진 좌익의 민족 담론은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문학론이나 민족문학론, 민중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으로 재생산된다. 민족, 민중, 계급을 상상한 '진보적' 문학론은 '국민'의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을 사상하고,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상정함으로써 개인의 이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민족 담론과 동형성을 갖는다. 진보적 민족 담론은 국가주의 민족 담론의 '폭력'을 저항한 또 다른 억압적 담론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민족 문학론 속에 은폐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체 사상의 원리를 반영한 주체문예이론에서 잘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적대적계급사회에는 그 사회의 계급관계를 반영하여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민족문학예술 즉 지배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반동적, 반인민적 문학예술과 피지배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 있었다.

문학예술의 '무계급성', '초계급성'에 대한 부르조아반동 작가, 예술인들의 주장은 순전히 제놈들의 문학예술의 반동적 본질과 반인민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이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사회정치적 기능을 말살하려는 악랄한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와 사상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어떤 계급적 성격도 띠지 않는 '초계급적'이며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은 있어본 적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sup>47</sup>

이북에서 민족문학은 “자기 민족의 생활과 투쟁,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 문학”<sup>48</sup>이다. 이 담론은 지배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 문학과 피지배계급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나누어진다.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문학과 달리 '진정으로' 민족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이며, 사회주의 문학은 민족문학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문학이다. 근본적으로 이북의 민족 문학 담론은 주체 사상에 의해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sup>49</sup>는 철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본 원리를 반영한 주체문예이론에서의 조선 인민은

<sup>47</sup>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p. 80.

<sup>48</sup>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p. 353.

<sup>49</sup> 황장엽의 주체사상(인간중심철학)은 “인간이 우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는 철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황장엽, 『인간중심철학의 몇 가지 문제』 (서울: 시대정신, 2001), p. 37) 이런 그의 철학은 지배 체제가 주장하는 '혁명적 수령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용되면서, 유일 체제를 이념적으로 옹호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모한다.

“민족적 긍지가 높고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며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근로하기를 좋아하는 인민”이며,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sup>50</sup>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이 담론은 민족적인 것이 단지 생활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것으로 말해지거나 조선 인민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라는 생물학 신비주의로 격하<sup>51</sup>될 수 있다. 인종이란 민족적 정통성의 산물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주장을 실체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작용 원리이다. 이런 ‘민족의 힘’을 상상하는 자민족중심주의는 정서적 차원에서 민족적 우월성과 발전을 약속하는 전략(알려주의-감동주의)을 주로 사용하고, 논리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위기를 상정하여 ‘인민’을 동원하는 전략(위기-동원), 민족의 역사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작업인 기억과 망각의 전략(기억-망각), 세계주의에 맞선 민족주의 전략(민족-세계)을 지속적으로 이용<sup>52</sup>한다. 결국 이런 민족 담론의 전략을 이용하는 주체 문예이론은 ‘우리’라는 경계짓기를 통하여, 민족우월주의로 신비화되고 실체화하여 인민을 유일체제로 동원하는 논리로 전략한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도 이 담론은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강의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자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sup>53</sup> 등의 ‘조선민족제일주의’로 그대로 이어진다. 조선민족제일주의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sup>54</sup> 강조의 논리이다. 이런 담론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자부하도록 만드는 이념적 동력 구실”을 한다. 이런 이북의 민족주의는 “‘자주성’ 테제에서 드러나듯이, ‘밖으로부터의 자유’에 본질적으로 매달리는 반면에, ‘수령론’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안에서의 자유’는 외면하거나 무시 또는 왜곡”<sup>55</sup>한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민족자결권을 기반으로

<sup>50</sup>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p. 121.

<sup>51</sup> “인종주의가 만들어 낸 것은, 그것이 ‘민족적’이든 아니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생물학적 신비주의다.” M. Neocleous, 정준영(역), 『파시즘』 (서울: 이후, 2002), p. 77.

<sup>52</sup> 이지명, 『넘쳐나는 민족 사라지는 주체』 (서울: 책세상, 2004), p. 44.

<sup>53</sup>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3.

<sup>54</sup> 윤종성·현종호·리기주, 『주체의 문예관』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p. 25.

<sup>55</sup>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pp. 137~138.



한 밖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당과 수령의 영도를 중심으로 한 수령론은 안에서 자유를 억압한다. 이는 이북 민족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며, 이 담론을 규정하는 것이 ‘위기’의 원리와 ‘은폐’의 원리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남한 사회가 ‘반공’으로 민족(정상)과 비민족(비정상)을 경계짓듯, 이북 사회를 규정하는 준거인 ‘주체’는 민족(정상)과 비민족(비정상)을 구별하는 척도이다. 주체적 인간(주체형 민족 공산주의자)만이 민족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민족중심주의의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이북의 주체문예이론이란 민족과 비민족을 선별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학 담론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담론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만 존재를 확인하는 역설체이다. 이런 자민족중심주의는 ‘민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여를 의미하며, 이는 민족국가를 관념화, 신비화, 절대화하는 경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런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비민족)보다 우수하다는 자기 과장은 끊임없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확인 과정(타자의 배제와 억압을 통한 자기 동일성에의 강한 집착)이며, 이는 가장 뿌리깊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

남한 사회를 규정한 ‘민족’의 실체는 무엇인가?

‘민족문학’의 주체가 되는 민족이 우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민족으로서 가능한 온갖 문학활동 가운데서 특히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시킬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그 대다수 구성원의 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며 이러한 민족적 위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국민문학 자체의 건강한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민족문학론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떤 영구불변의 실체나 지고의 가치로 규정해놓고 출발하는 국수주의적 문학론 내지 문화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치·경제·문화 각부문의 실생활에서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여져 있는 인간들의 전부 또는 그 대다수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학이 ‘민족문학’으로 파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때와 장소에 한해 제기될 뿐이며, 그 때와 장소의 선정은 어디까지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모든 인간의 염원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6</sup>

백낙청의 민족 담론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떤 영구불변의 실체나 지고의 가치로 규정해 놓고 출발하는 국수주의적 문학과 달리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이며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학’ 담론이다. 그

<sup>56</sup> 백낙청, “민족문학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 7), p. 82.

는 민족문화이 민중을 주체로 한 구체적인 반식민·반봉건의 민중적 의식의 문학적 표출이며 세계문화으로서의 선진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주의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주입된 ‘충효’의 관념에 맞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등장시킨 민족문화론의 의의는 인정되지만, 그의 담론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저항”<sup>57</sup>을 위해 민중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담보한 이분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족의 가장 진보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상상되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개인을 ‘민중’의 일부분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며, 민족문화의 독자성이나 우수성의 근거로 파악하는 현상은 도덕성을 담보한 논리<sup>58</sup>이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억압에 대한 저항과 해방을 위한 단결과 진보를 추구하는 민족문화론은 각 민족이 가지는 도덕화의 논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민중의 승리란 도덕적 힘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담론은 이성적 사유에 의한 민족의 도덕적 성장을 강조하는 반면 억압적 타자에 대한 저항의 논리<sup>59</sup>이다.

그것은 복고주의와 더불어 참다운 민족주의·민족문화의 발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마땅히 경계되고 규탄되어야 하지만, 그 올바른 극복의 길은 오직 참다운 민족주의의 실현뿐이다. 국수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민족주의 자체를 경계하고 민족문화·민족문화의 이념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는 본말을 뒤집는 꼴이며, 사이비 민족주의자들에게 그럴듯한 반론의 구실이나 주어 민중의 정신을 더욱 산란케 하고 민족적 각성을 지연시키는 결과나 가져올 뿐이다. 참다운 민족문화이 선진적인 세계문화이듯이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민족주의 역시 그것이 맞서 싸우는 상대의 국제적 성격 때문이라도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족주의나 세계주의나 하는 식의 때늦은 탁상공론은 당면한 민족적 위기의 인식을 흐리게 하기에는 알맞은 것이다.<sup>60</sup>

위의 지적에서 보듯, 그가 주장하는 ‘참다운’ 민족주의는 위기 담론을 수반하

<sup>57</sup> 위의 글, p. 88.

<sup>58</sup> 그의 담론에서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체적’, ‘선진적’, ‘참다운’, ‘올바른’, ‘복된’, ‘자랑스러운’ 등의 단어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을 담보한 용어들이다.

<sup>59</sup>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규범적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은 발생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와 독립 후의 참혹한 내전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민족은 사실상 국가의 공백을 채워 주는 신화적 실체였다. 민족주의가 도덕적 정언 명령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하다.”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비교사적 문제 제기,” 『당대비평』 (2000. 봄), p. 184.

<sup>60</sup> 백낙청, “민족문화이념의 신전개,” p. 90.

는 저항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상상의 주체인 민중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담보한 논리이다. 그는 ‘민중 정신’ ‘민족적 각성’ 등의 수사를 통해 민족을 끊임없이 일깨우며 동원한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그는 ‘민중’이나 ‘민족’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 있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항 담론에서 적의 침입에 맞서 민족의 단합을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지만 절대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구성은 자신의 특성을 정의하는 내적 규정과 타자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을 차별화하는 외적 규정을 수반한다. 민족주의는 민족 형성 혹은 민족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 통합의 근거를 제공한다. 논리적으로 식민지 체험을 가진 국가에서 민족 담론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식민 담론의 규정을 해체하고, 민족적 발전을 저해하는 외적 세력에 대한 타자의 규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에 의해 민족 담론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고 타자의 본질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담론 전략<sup>61</sup>을 취한다. ‘찬란한’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다. 단지 그가 주장하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란 끊임없이 유예될 뿐이다.

## V. 결론 - ‘배신과 복수’의 폭력의 변증법

남/북한의 근대 기획은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sup>62</sup>이기도 하지만, 지배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압적 지배체제를 은폐시키며, 확고한 그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기획은 개인을 동원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정향성을 이용하는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로 전략한다. 그런데 이 기획은 지배체제의 전유물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근대 기획은 ‘민족’을 규율하여 지배 체

<sup>61</sup>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통일 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조한혜정·이우영(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p. 69.

<sup>62</sup> 남한에서 이북은 “김 일성 독재와 공포 정치 밑에서 떨어져 하고, 좀더 심각한 압박과 굶주림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회이듯, 이북에서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지옥”이다. 오천석, 『국민정신무장독복 1』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p. 16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p. 87.

제에 복종하고 스스로 욕망하는 주체를 창출하는 권력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욕망한 근대 기획의 민족, 민족주의, 민족 문학론은 배제와 억압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경계짓기의 담론이다.

민족을 이상화하는 ‘보수적’ 민족 문학론은 당대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학’의 절대적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민족, 민중, 계급을 상상한 ‘진보적’ 문학론은 ‘국민’의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을 사장하고, 민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상정함으로써 개인의 이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민족 담론과 동형성을 갖는다. 진보적 민족 담론은 국가주의 민족 담론의 ‘폭력’을 저항한 또 다른 억압적 담론이다. 이런 남/북한의 민족 담론은 ‘민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민족국가를 관념화, 신비화, 절대화하는 경향의 다른 이름이다. 이 담론은 개인의 의지에 기초한 자율성을 가진 개별 주체가 ‘민족적 주체’라는 ‘전체’에 수렴되는 전체주의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다. 이 논리의 상투적인 수사인 ‘분열에서 통합’이라는 명제는 남/북한 ‘민족’의 생존 욕망을 자극하고 동원하며 통합하려는 권력 의지의 발현이다. 특히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타자)보다 우수하다는 자기 과장은 타자의 배제와 억압을 통한 자기 동일성에의 강한 집착을 의미하는 끊임없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며, 이는 가장 뿌리깊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의 한 변형이다. ‘우리(민족)’라고 상상되는 가면의 경계 안이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우리들을 경계지운 따뜻한 ‘안(민족)’은 대부분 우리의 탐욕스러운 열락을 봉합하는 상상된 안식처일 뿐이다.

근대 민족 담론은 “신과의 동맹을 지킨다는 것은 충실의 상징이며, 이 동맹을 깬다는 것은 배신의 모델”인 “배신과 복수의 폭력의 변증법”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근대의 “계몽”의 개념은 배신에 대한 잠재적으로 보편적인 동맹관계의 개념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sup>63</sup> 결국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족 담론은 근대가 낳은 대표적 계몽의 기획이다. 이 담론에서 진보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몽의 원리는 중심을 강조하고 주변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이런 사유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면 ‘계몽의 지칠 줄 모르는 자기파괴’<sup>64</sup>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맹목적으로 실용화된 이 기제는 인간이나 세계를 합리화한다는 명

<sup>63</sup> J. Habermas, 이진우(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 378.

<sup>64</sup> M. Horkheimer & Th. W. Adorno, 김유동·주경식·이경훈(역), 『계몽의 변증법』, pp. 17~18.

목 아래 인간이나 세계를 조직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 의지의 발현이다. 결국 이런 사실에서 파악할 때, 이 담론 역시 이성을 기반으로 한 진보의 신화라는 근대성의 다른 얼룩<sup>65</sup>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남/북한의 민족 담론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이다. 단지 ‘위대한’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 ‘타자’나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다. ‘민족중흥의 역사’나 ‘위대한 수령이 이룩하신 주체시대’는 끊임없이 유예될 뿐이다. 남/북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남/북한의 민족 담론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결국 남/북한의 민족 담론은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남/북한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제국의 시선이며, 모든 대상을 민족 중심의 위계 질서로 서열화하는 근대주의 담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아! 대~한민국!’이나 ‘위대한 주체시대!’가 아니라 ‘민족’ 외부의 상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 접수: 3월 20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

<sup>65</sup> 이 진보의 신화를 추동시킨 것이 추락의 공포이며, 이 신화의 결과란 바로 정신적 황폐화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대열을 벗어나 예외로 남는 것은 곧 낙오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개발에 앞장선 영웅들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신호로 남을 밀치고 뛰어야 하는 선착순의 경주에서 모두는 익명(匿名)화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강대한 타자가 부정되었던 것같이 내부의 타자가 오직 유린의 상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얼굴도 사라진다. 정신적 파탄과 황폐화는 필연적 귀결이다. (……) 남을 배제함으로써만 나를 확보할 수 있는 삶은 치열하지만 이미 파탄된 경주이다.”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서울: 삼인, 2003), pp. 28~30.